

· 작성부서	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개발부 금융파생개발팀		
· 담당자	금융파생개발팀 팀장 : 고영태 (☎ 051-662-2711) 팀원 : 우창하 (☎ 051-662-2715)		
· 배포일	2014. 9. 29(월)	· 배포부서	홍보부 (☎ 02-3774-4082~4085)

제 목 :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으로 주식선물시장 질적 개선

□ 한국거래소(이사장 최경수)는 주식선물시장 제도개선 시행 후 2주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,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등으로 주식선물시장이 질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

※ 한국거래소는 '14.6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「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」의 후속조치로 지난 9월 15일 주식선물의 종목수 확대(25개→60개) 및 장기결제월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

< (참고) 시장조성자제도 >

□ 시장조성자의 역할 : 주식선물에 상시적으로 매도·매수 양방향 호가를 제출(유동성 공급)함으로써 투자자가 언제든지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

□ 시장조성기간 : 최소 1년 이상(필요시 분기단위 연장)

□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6개 회원*은 제도개선 후 적극적으로 주식선물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남

* 시장조성회원 (가나다 순)  KDB대우증권,  신영증권,  신한금융투자,  우리투자증권,  한국투자증권,  현대증권

□ 그 결과, 신규로 상장된 35개 주식선물 중 10개 종목이 헤지·차익거래가 원활한 수준인 일평균 2천계약 이상 거래*되었으며,

* LG유플러스, 대우조선해양, 삼성중공업, 한국항공우주, 삼성전기, 기업은행, 한국금융지주, 삼성SDI, 삼성테크윈, 삼성증권

○ 이중 LG유플러스 주식선물은 33,345계약이 거래됨(9월24일)

○ 기존종목(25개) 중에는 한국전력 부지 인수 이벤트(9월 18일)로 한국전력, 기아차 및 현대차 주식선물의 롱-숏 거래가 활발*하였음

* (한국전력) '14년 상반기 일평균 거래량 17,121계약 → 9월18일 119,954계약
 (기아차) '14년 상반기 일평균 거래량 15,988계약 → 9월18일 64,212계약
 (현대차) '14년 상반기 일평균 거래량 7,645계약 → 9월18일 38,875계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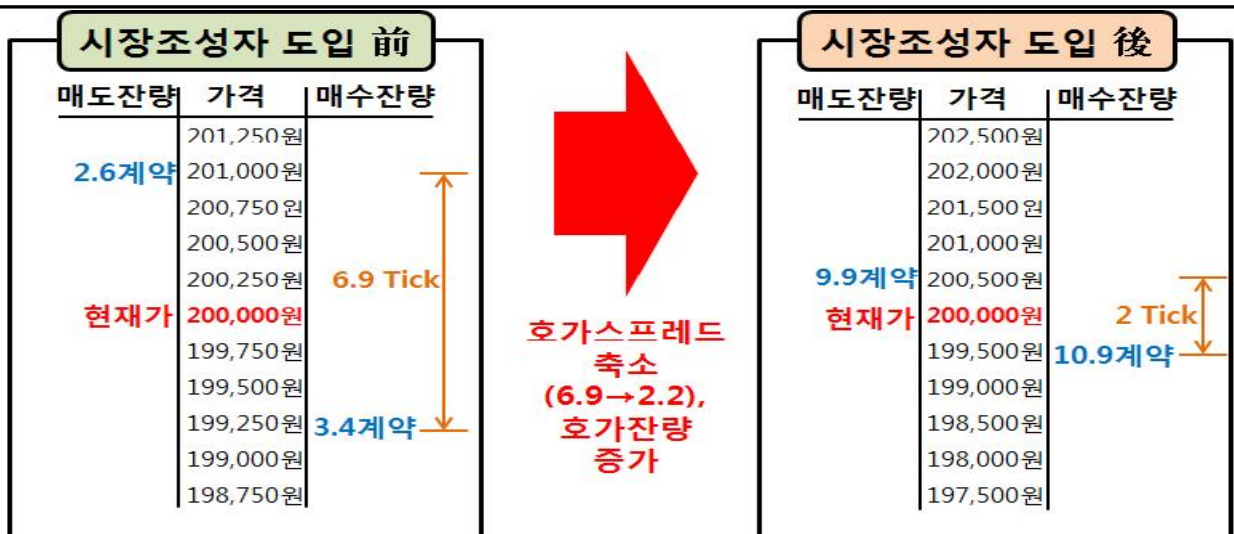
□ 이는 투자자가 언제든지 시장가격으로 주식선물을 사거나 팔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가 촘촘히 매도·매수 호가를 제출했기 때문임

○ 호가를 촘촘히 제출한 것을 측정하는 지표인 최우선 매도-매수 호가스프레드*가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前에는 2.29 tick에서 도입 後에는 1.39 tick으로 개선되었음

※ 최우선 매도-매수 호가스프레드 : 가장 싼 매도 가격과 가장 비싼 매수 가격의 차이이며, 그 값이 클수록 투자자가 주식선물을 시장가격 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

- 특히, 기존종목인 이마트와 KT&G의 경우 기존 약 7 tick에서 약 2 tick으로 대폭 축소되었음

《 호가스프레드 축소 효과(예 : 이마트 주식선물) 》



○ 또한, 최우선 호가의 호가잔량도 평균적으로는 약 70계약에서 약 140계약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

- 이로 인해, 주식선물의 가격변동 가능성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됨

《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전후 최우선 매도-매수 호가잔량 비교 》

구분	최우선 매도 호가잔량	최우선 매수 호가잔량
시장조성자 도입 前 (‘14.8.27~9.12)	65.4계약	67.9계약
시장조성자 도입 後 (‘14.9.15~9.26)	135.3계약	134.9계약

* 기존 25개 종목의 최우선 매도·매수 호가잔량

□ 한편, 시장조성자가 주식선물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체결된 거래량은 전체의 14.5%*임

* 시장조성자 거래량(매도+매수) ÷ 주식선물 총 거래량((매도+매수)/2)

《 시장조성자 거래비중(‘14.9.15~26) 》

구분	총 거래량(A)	시장조성 거래량(B)	거래비중(B/A)
전체	2,920,857계약	424,123계약	14.5%

* 총 거래량 = (매도 거래량 + 매수거래량)/2, 시장조성거래량 = 매도 거래량 + 매수 거래량

○ 이 중 시장조성자가 일반투자자 보다 먼저 호가를 제출하여 체결된 거래량(Make 거래량)은 전체의 66.2%이며,

- 이는 시장조성자가 거래량 증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기능인 유동성 공급에 충실하였다는 증거임

《 시장조성자 Make·Take 거래량(‘14.9.15~26) 》

시장조성 거래량	Make 거래량	(비중)	Take 거래량	(비중)
	424,123계약	280,753계약	(66.2%)	143,370계약

* Make 거래량 : 시장조성자가 일반투자자 보다 먼저 호가를 제출하여 체결된 거래량
Take 거래량 : 시장조성자가 일반투자자 보다 늦게 호가를 제출하여 체결된 거래량

- **(향후전망)** 일평균 2천계약 미만인 나머지 종목도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공급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며,
 - 이로 인해 투자자는 언제든지 주식선물을 이용하여 헤지·차익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
- **(향후계획)** 한국거래소는 주식선물과 연계거래가 가능한 주식 옵션의 리모델링을 '14.11.17일(월)에 시행할 예정임
 - 이에 앞서, 주식옵션의 투자전략에 대한 설명회(10.15일, 11.5일)를 개최할 예정임